

## Contents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ZIM, 2019년 글로벌 정기선사 정시성 1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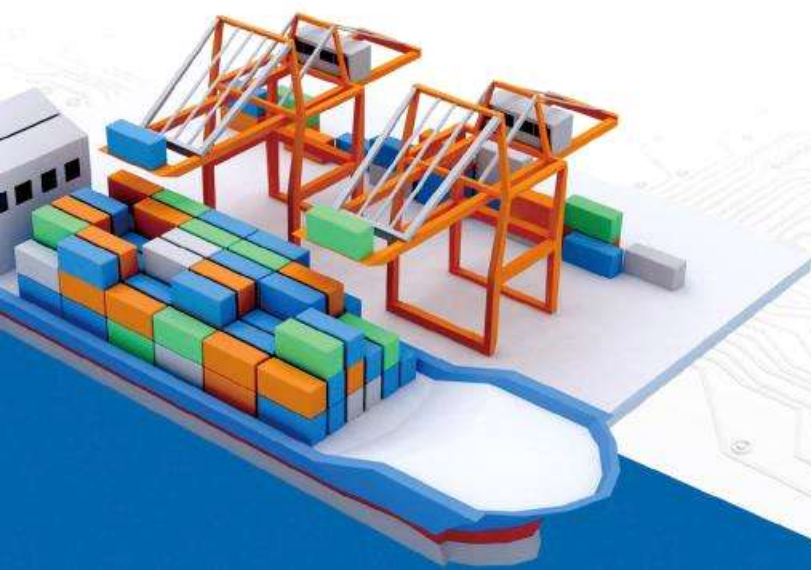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상하이항, 세계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처리 실적 1위 10년째 유지
2. DP World, 르완다 최초의 냉장창고 개장
3. 하파그로이드, 2M의 북유럽 항로 선박 교환 계약 체결
4. 2020년 전자상거래 4대 동향 및 기업의 활용법

### 명사 스피치

“훈춘은 동북아 최대 환적항만 도시이자 물류 요충지로, 훈춘에서 교역되는 수산물 등이 부산항으로 바로 운송된다면 내륙 육상 운송거리 단축으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  
(2020. 1. 17. / '부산-훈춘 해양물류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식'에서)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ZIM, 2019년 글로벌 정기선사 정시성 1위 기록

-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해운공급사슬 정보 분석기업인 eeSea사에 따르면 2019년 3대 동서 기간항로를 이용한 선박 중 47%만 정시성을 달성했으며, 10%는 3일 이상 지연 도착함
- 2019년 14개 글로벌 주요 정기선사를 대상으로 정시성을 분석한 결과 ZIM의 정시성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EVERGREEN과 MAERSK는 각각 2위(58%)와 3위(57%)를 기록함
  - 현대상선의 경우 정시성이 45%로 10위를 차지했으며, ONE은 정시성이 27%로 최하위를 기록함
- 한편 3대 얼라이언스의 경우, 3대 동서 기간항로에서 'THE 얼라이언스'의 정시성이 35%(2M 56%, OCEAN 53%)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극동-북미항로에서 정시성은 25%에 불과했음

2019년 14대 글로벌 정기선사 정시성 순위

순 위	선 사	정 시 성
1	ZIM	65%
2	EVERGREEN	58%
3	MAERSK	57%
4	COSCO	55%
5	CMA CGM	54%
6	MSC	54%
7	APL	52%
8	OOCL	47%
9	PIL	46%
10	HMM	45%
11	YANGMING	45%
12	HAPAG-LLOYD	41%
13	WANHAI	39%
14	ONE	27%

자료 : eeSea(<https://www.eesea.com>), 검색일: 2020.1.28.참고자료 : [www.eesea.com](http://www.eesea.com), 2020.1.28.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mailto:hisgrace@kmi.re.kr)



## 물류정책·산업동향

## 상하이항, 세계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처리 실적 1위 10년째 유지

- 상하이항은 2019년 컨테이너 물동량 4,330만 TEU를 달성하며, 10년째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컨테이너항으로 선정됨
  - 상하이국제항만그룹(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 SIPG)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360억 위안(51억 달러), 순이익은 12.5% 감소한 90억 위안(12억 달러)을 기록함
  - 2017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취급 물동량이 4,000만 TEU를 넘음
- 반면, 한때 세계 최대 컨테이너항이었던 홍콩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1,836만 TEU를 기록하였음
  -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체들이 홍콩 씨포트 얼라이언스를 설립했지만, 물동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음
  - 2,077만 TEU를 달성했던 2017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 이후 홍콩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세계 2위의 컨테이너항인 싱가포르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720만 TEU를 처리함
  - 아시아 선박 급유 허브이기도 한 싱가포르항은 2019년에는 전년도보다 230만 톤 적은 4,750만 톤의 연료유를 판매하였음
  - 다만, 기항 선박 총 2,850만 톤으로 2018년보다 2.2% 증가하였음

■ 참고자료 : [www.seatrade-maritime.com](http://www.seatrade-maritime.com) 2020.1.21.

이지원 연구원

051-797-4799, [jiwon@kmi.re.kr](mailto:jiwon@kmi.re.kr)

## DP World, 르완다 최초의 냉장창고 개장

- 최근 DP World는 르완다 최초의 냉장창고를 수도 키갈리(Kigali)에 개장함
  - 해당 냉장창고는 모든 요건을 완벽히 갖춘 시설로써 르완다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립됨
  - 또한 지난 10월 개장한 키갈리 물류 플랫폼(Kigali Logistics Platform)<sup>1)</sup> 운영능력을 확대하기 위함임
  - DP World는 이를 계기로 차나 커피 등 기호식품 외에도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국제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DP World의 냉장 공급망은 엔드투엔드(end-to-end) 운송을 제공하여 비용과 배송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르완다의 수입 및 수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냉장창고를 통해 콜드체인 상품의 수입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제약 회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DP World 관계자는 부패성 상품의 운송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냉장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더 다양한 주요 부문에서의 수입을 증대시켜 키갈리 물류 플랫폼의 운영을 확대할 예정 이라고 밝힘
- 냉장 공급망 운영에 있어 엄격한 글로벌 HSE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까지 다수의 현지 및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냉장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을 한 상태임
- DP World는 2021년에는 냉장창고의 처리 능력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해 향후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함으로써 르완다의 경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참고자료 : <https://container-mag.com/2020/01/28/dp-world-kigali-opens-rwandas-first-fully-fledged-cold-storage/>, 2020.1.28.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1) 2019년 10월 르완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국에서 가장 큰 내륙화물 취급 시설이자 전체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인 키갈리 물류 플랫폼을 개설함(연간 5만 TEU 처리). 이 시설은 우간다를 통과하는 철도 노선을 통해 케냐의 몸바사 항만과 현재 건설 중인 다른 철도로 다르 에스 살람 항만(port of Dar es Salaam)과 연결될 예정임

## 하파그로이드, 2M의 북유럽 항로 선복 교환 계약 체결

- 1월 17일, 독일 선사 Hapag-Lloyd(하파그로이드)는 2M(Maersk·MSC의 정기항로 얼라이언스)과의 선복 교환(Space Charter) 계약을 체결을 공표
  - 하파그로이드는 일본의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 대만의 양명해운, 우리나라의 현대상선과 함께 정기항로 얼라이언스 '디 얼라이언스(TA)'의 정식 회원사로, 1월 16일에는 현대상선의 TA 정식 회원 가입을 계기로 2020년 4월부터 TA 동서항로 서비스 체제 개편을 발표한 바 있음
  - 하파그로이드는 3월부터 2M이 제공하는 아시아-북유럽 항로 서비스에서 선복 교환을 이용하게 되며, 이를 통한 자사의 서비스 체제 강화를 표명하고 있음
- 하파그로이드가 속한 TA가 제공하는 북유럽 항로 서비스는 5루프(1월 16일 기준)이며, 이번 계약으로 하파그로이드가 이용하는 2M의 서비스 내용 및 TA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공표할 예정
  - 2M 서비스의 이용으로 하파그로이드가 기대할 수 있는 예상 효과로는 직접 기항하는 항만 추가 외에 기존보다 더 많은 주당 출발 횟수 및 더 많은 라우팅 옵션 제공을 통한 스케줄 신뢰성 제고 등으로 전망됨
  - 일반적으로 동일 얼라이언스의 컨테이너 선사 간에 서비스(선복 교환)를 상호 이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나, 타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선사와의 기간항로 서비스 이용은 흔치않은 예라 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secure.marinavi.com](https://secure.marinavi.com), [hapag-lloyd.com](https://hapag-lloyd.com) 2020.1.21.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mailto:han@kmi.re.kr)



## 2020년 전자상거래 4대 동향 및 기업의 활용법

- 2019년 3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전자상거래업은 지속 성장해 2023년에는 6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전자상거래 4대 동향은 첫째 상점으로부터의 배송(ship from store), 둘째 전자지갑(digital wallet) 활용, 셋째 친환경 배송(green shipping for all), 마지막은 소비자 직접 배송(D2C, Direct-to-Consumer)임
- 미국 우정청(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중앙배송센터가 아닌 고객 근처의 '상점으로부터 배송(ship from store)'하는 것으로 고객은 좀 더 빨리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음
  - 인근 상점에서 배송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정확한 재고조사로 고객에게 재고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줄여주고, 회사는 자체 재고 및 사내 풀필먼트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이 가능함
  - 상점에서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공간활용을 극대화해서 구매고객과 직원들이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주문상품을 포장하고 내점 고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후방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함
  - 효율적인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누가 가장 싼 배송을 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동일한 선사, 운송업체를 이용할 필요는 없음
- 온라인 결제를 좀 더 빠르게 제공하여 고객의 구매 변심 시간을 줄이도록 '전자지갑(digital wallet)'을 활용해야 함
  - 오랜 시간에 걸친 지불 정보와 주소정보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당신의 지불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음
  - Forrester지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1%가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해서 장바구니 상품을 포기했다고 응답함
  - 전자지갑은 고객이 스마트폰, PC, 태블릿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행카드를 꺼내지 않고 빠른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얼굴인식 및 지문인증과 같은 기술은 결제 과정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
  - 2018년 체크아웃전환지수(checkout conversion index) 상위 30개 가맹점은 아마존 및 애플페이를 포함한 평균 8.2개의 지불 방법 사용이 가능한데, 결제 프로세스에서 전자지갑 공급업체를 선택하면 사이트에서 자동 플러그인 제공과 검증을 실시함
- 2020년에는 더 많은 '친환경 배송(green shipping)'이 실현 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1월에 세계 100대 도시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라스트마일 배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송 차량의 배출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 미국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WEF의 권고사항 중 하나는 배송 차량을 전기 또는 수소 구동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임
  - 11개 주요 기업<sup>2)</sup>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단체인 세레스(Ceres)가 주도하는 기업형 전기차

2) 아마존, AT&T, 클리프바(Clif Bar), 소비자 에너지(Consumer Energy), DHL, 다이렉트 에너지(Direct Energy), 젠테테크(Genentech), 이케아 북미, 리스플랜(LeasePlan), 라임(Lime), 지멘스(Siemens) 등



- 동맹(Corporate Electric Vehicle Alliance)에 가입했다고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 이 동맹의 목표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전기자동차(EVs, Electric Vehicles)로의 전환을 서둘러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임
- Cone Communications사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87%가 사회적 및 친환경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친환경 배송은 도심내 자전거를 이용해 픽업 지점까지 배달하거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과 관련됨
- UPS사와 DHL사는 휘발유 트럭을 지속가능한 전기트럭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0억 톤까지 줄이는 작업을 시작함
- 소비자에게 친환경 배송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특송배송을 회피하거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주문들을 하나의 소포로 통합 배송함

- 아마존, 이베이 같은 ‘소비자 직접 배송(D2C)’ 브랜드는 중개인 없이 구매자에게 바로 배송함
  -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인의 40%가 D2C 브랜드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브랜드는 종종 제품을 설계, 출시, 배송함으로써 D2C 브랜드 제품 및 평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로 이익을 낼 수 있음
  - D2C 회사들은 산업 내 결점을 발견하고 고객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소규모 단위로 고객에게 시험해보고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 2020년 D2C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 제품을 탐색해 고객에게 쉽고 싸게 공급해야 하고, 검색엔진 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함
-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이므로 이를 따라잡기 않기 위해서는 기업은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올바른 기술과 혁신을 구현해야함

■ 참고자료 : supplychaindive.com, 2020.1.16. & 2020.1.23

이연경 부연구위원

051-797-4682, eklee@kmi.re.kr